



Culture and Development  
Roundtable Series

2012  
문화와 발전  
제2차 라운드테이블  
행사 자료집

일 시 | 2012년 9월 21일(금) 14:00-17:30

장 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층 유네스코홀

주 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와 발전 제 2차 라운드테이블 일정

일 시 | 2012년 9월 21일(금) 14:00~17:30

장 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층 유네스코홀

주 제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문화적 성찰과 대안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14:00 ~ 14:10	개회사 및 축사	
1부	<b>I. 문화권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b>		
	14:10 ~ 14:40	기조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li> <li>○ 토론: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li> </ul>
2부	<b>II. 한국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b> (진행: 정우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14:40 ~ 15:10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한국 문화 ODA, 현황과 전망 (강주홍, 국무총리실 개발협력기획과장)</li> <li>○ 토론: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li> </ul>
	15:10 ~ 15:40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흐름 (이태주, 한성대 문화인류학과 교수)</li> <li>○ 토론: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li> </ul>
	15:40 ~ 16:0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6:00 ~ 16:20	휴 식	
3부	<b>III. 종합 라운드테이블</b> (진행: 곽재성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16:20 ~ 17:30	종합토론	전문가 패널 30인
	17:30 ~	폐 회	



# 목 차

1. 2012 문화와 발전 라운드테이블 .....	5
2. 전문가패널 30인 프로필 .....	7
3. 발제문	
<b>1부 문화권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b>	
기조발제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17
토론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	29
<b>2부 한국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b>	
<b>주제 1 한국 문화 ODA, 현황과 전망</b>	
발표   강주홍 국무총리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33
토론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	45
<b>주제 2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흐름</b>	
발표   이태주 한성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48
토론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	60



## 2012 문화와 발전 라운드테이블 소개

### □ 문화와 발전 의제 설명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은 “문화는 지속가능발전의 필수 요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는 2000년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는 사실상 배제되었지만 최근 다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유엔 총회에서 ‘문화와 발전’ 의제가 연달아 주요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문화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정보 공유, 정책 개발, 국가 및 지역 내 협력 강화 등을 촉구하고, 2015년경 유엔 주도의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문화와 발전’ 의제는 산업화나 국민소득의 증가와 같은 단순한 경제성장의 차원을 넘어서서 발전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세계화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와 환경 파괴, 지역공동체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발전 방식을 성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존중, 문화다양성의 실현 등 보편적 가치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 □ 라운드테이블 소개

라운드테이블은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문화와 발전’ 논의를 한 자리에 모으고 국제적 수준의 의 설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장입니다. 라운드테이블을 이끄는 전문가 패널은 문화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관계학, 문화예술, 문화정책, 예술경영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실무자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 ○ 제 1차 문화와 발전 라운드테이블

일시·장소: 6월22일/밀레니엄 서울힐튼

주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역할

#### <1부> 기초발제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 <2부>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의 여러 사례

·문화 자산의 지역 발전 적용 사례  
·문화예술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개도국 발전과 문화유산 및 고유문화의 역할

#### <3부> 종합라운드테이블

·문화다양성과 지역 문화의 활용

### ○ 제 2차 문화와 발전 라운드테이블

일시·장소: 9월21일/유네스코회관 11층

주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문화적 성찰과 대안

#### <1부> 기초발제

·문화권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 <2부> 한국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한국 문화ODA, 현황과 전망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흐름

#### <3부> 종합라운드테이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문화를 중심으로

### ○ 제 3차 라운드테이블 (국제 심포지엄)

일시·장소: 12월7일/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주제: Post-MDGs에서의 문화의 역할 제고

#### <1부> 기초발제

·Post-MDGs에서의 문화의 기여  
·문화를 활용한 국제개발 사례

#### <2부> 2012 연구사업 발표 및 토론

#### <3부> 종합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문화의 주류화 방안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전망



## 전문가패널 30인 프로필

### 강경환 | Kang, Kyunghwan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1998년 문화재관리국 근무를 시작한 이래 문화재청 국제교류과장·문화재활용과장·보존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문화재에 관한 정책을 개발, 실행하면서 특히 지속가능성과 주민 참여를 통해 보전과 개발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문화유산 보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목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역서로는 ‘역사도시 투어리즘(공역, 2012)’이 있다.

### 강주홍 | Kang, Juhong

국무총리실 개발협력기획과장으로 재직하며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총괄·조정 및 기획·평가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거쳐 국무총리실 교육정책과장, 국무조정실 산업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형 ODA 모델 개발, ODA 통합평가 등과 관련된 활동과 연구를 펼치고 있다.

### 곽재성 | Kwak, Jae Sung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동대학원 학과장 및 국제학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다자간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중남미 정치경제. 미주개발은행(IDB)과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등에서 컨설턴트를 지냈다. 저서로는 ‘한국의 대중남미투자과 진출전략연구(공저)’,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공저)’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어서문학을 전공했고, 영국 리버풀대학교에서 중남미지역학 석사 및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 구문모 | Goo, Moon Mo

한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이고 관심 분야는 문화산업과 문화경제론이다.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지구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문화콘텐츠나 창조산업에 관한 다수의 정책 보고서를 집필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동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기 량 | Ki, Yang**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관심 분야는 주생활과 전시기획으로서 최근에는 무형유산의 활용과 공동체박물관에 관심을 갖고 있다. 1992년 국립민속박물관 근무를 시작한 이래 기획전 ‘추억의 세기에서 꿈의 세기로(20세기 문명전)’, ‘한민족의 젓줄, 한강’ 등을 기획했으며, 인천 수도권국산달동네박물관 운영자문위원, 국립민속박물관 상설3관 리모델링과 박물관 이전 건립 총괄 등을 담당하고, 2012년 ‘아리랑’ 특별전을 총괄 지휘했다. 홍익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 건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김은경 | Kim, Eun Kyu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팀 팀장 겸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젠더와 개발, 여성정책, 제3세계 여성정책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및 KOICA 연수 프로그램 강사로도 활동 중이며,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우리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공저)’, ‘한국 NGO의 젠더이슈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분석과 전망’(대표저자),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을 위한 공공서비스 책임성 제고와 ‘좋은 거버넌스(공저)’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김철원 | Kim, Chulwon**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학장(컨벤션경영학과 교수)으로 재직 중이다. UNWTO(세계관광기구) Asia Pacific Newsletter 편집위원장, OECD Tourism Committee 한국대표 및 컨설턴트,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협력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관광현상규명을 위한 질적연구방법의 고찰’,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 관광협력에 관한 연구’, ‘여가제약과 문화적응과정’, ‘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텍사스 A&M 대학원에서 여가 및 관광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노명우 | Nho, Myung Woo**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문화사회학에 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발터 벤야민. 모더니티와 도시’, ‘불확실한 세상’ 등이 있고, 학술 논문으로는 ‘에스노그래피와 문화연구방법론’, ‘경기도 문화지표체계 개발연구’, ‘OECD 주요국가의 문화경쟁력 분석’,

---

‘문화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법제화 방안연구’,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연구’ 등이 있다.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라도삼 | La, Do-Sam**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문화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문화정책과 도시문화이며 ‘세계 주요도시의 문화전략과 서울 걸쳐노믹스 연구’, ‘예술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문화도시와 문화전략’ 등 다수의 논문과 보고서를 집필했다. 중앙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류정아 | Ryoo, Jeung-Ah**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인문콘텐츠학회 학술연구위원장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축제와 지역문화이며 저서로는 ‘전통성의 현대적 발견’, ‘축제인류학’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인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사회인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박경태 | Park, Kyung Tae**

성공회대학교 사회학부 교수이며, 소수자 연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의 다문화공간(공저)’, ‘다문화사회연구(공저)’,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 등이 있다. ‘다문화사회와 소수자: 인종·민족 갈등’, ‘한국에서의 소수자 차별의 사회적 원인’ 등 다문화사회 및 소수자에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오스틴)에서 사회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박양우 | Park, Yang-Woo**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관광국장, 주뉴욕한국문화원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문화관광부 차관,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다. 현재 2012 광주 ACE Fair 추진위원장, 한국영상산업협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평가위원장, 한국예술경영학회장과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부회장, 한국컨벤션학회 부회장, 한국지식재산포럼 부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변 응 | Byun, Oung**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이다. 동대학원에서 CAMPUS Asia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수, KIEP GPAS 유럽-아프리카 연구회 공동간사 등을 지냈다. 문화-언어의 국제관계 및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코포니 등 문화-언어의 국제협력을 통한 세계화가 주요 관심사이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파리정치대학(시앙스포)에서 정치학 석사, 파리고등사범학교(ENS)-파리고등사회과학원(EHESS)에서 국제관계(역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서진석 | Suh, Jinsuk**

1999년 국내 미술계 최초의 대안공간인 ‘루프’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많은 한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2004년부터 비디오아트 페스티벌-Move on Asia를 기획하여 144명의 아시아 작가들과 전 세계 순회전시를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A3아시아현대미술상과 아시아아트포럼 등을 통해 아시아미술의 새로운 담론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2010년 리버풀비엔날레 등 여러 국제 비엔날레 기획에 참여 하였고 쿤스트할레 뒤셀도르프, 센트럴이스탄블, 카사아시아 등의 기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 **손경년 | Son, Kyungnyun**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학과 강사와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고, 한국대표,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조사연구팀장·도시조성실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공저)’ 등이 있으며, ‘서울시 청소년 창의지수 연구’ ‘문화도시 만들기’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런던 시티대학교에서 문화정책 및 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오명석 | Oh, Myung-Seok**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경제인류학, 역사인류학 및 동남아시아 지역연구이며 한국문화인류학회 부회장, 한국동남아학회 학회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우리 안의 외국문화(공저)’,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종족갈등(편저)’ ‘처음만나는 문화인류학(공저)’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호주 모나쉬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유승호 | Ryu, Seung-ho**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교수 및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문화경제학회 부회장, '문화경제연구' 편집위원장,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창의도시포럼 대표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당신은 소셜한가?', '디지털시대와 문화콘텐츠', '문화도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작은 파리에서 일주일을', '에든버러에서 일주일을' 등 문화산업과 창의도시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윤금진 | Yoon, Keum-jin**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문화예술교류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1992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근무를 하며 문화교류부장, 한국학사업 부장, 문화센터 소장 등의 직책을 거치며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였다. ICOM 한국위원회 국제위원회 이사,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문위원, 서울 글로벌센터 사업운영 평가위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영어영문학과 및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관리학과 석사를 취득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에서 박물관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선철 | Lee, Sun-chul**

연세대 사회학과와 영국 런던 시티대학교 문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김덕수패사물놀이의 기획실장과 음반 및 공연전문 벤처기업 폴리미디어 대표이사를 지냈다. 단국대와 숙명여대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는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원도 평창의 폐교를 개조한 복합문화공간 '감자꽃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며, 문화부와 농림부 그리고 여러 지자체의 문화정책 자문과 연구 그리고 교육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령 | Lee, O Young**

초대 문화부 장관(1990~91)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자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이다. 1934년 충남 온양에서 출생, 서울대학교 문리대과대학 및 동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67년부터 30년 이상 이화여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배출했다. 1956년 한국일보에 '우상의 파괴'를 발표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대표 저서로는 에세이집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축소 지향의

일본인 '지성에서 영성으로', 소설 '장군의 수염' 평론집 '저항의 문학' '젊음의 탄생' 등이 있다.

**이원재 | Lee, Won Jae**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및 한겨레신문사 경제부 기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한국경제 하이에나를 죽여라', '전략적 윤리경영의 발견' 등이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적 기업 등을 주제로 기고, 강연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이태주 | Lee, Tae Joo**

한성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원장과 ODA Watch 대표이다. 관심분야는 국제개발과 ODA 정책, 국제개발 모니터링 평가, 국제이해교육(EIU)과 다문화정책 등이다.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외교통상부,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등에서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프로젝트를 추적하다: 국제개발과 인류학적 참여', '한국 ODA의 효과성과 개선과제', 'Korea joins the big league, but with a highly donor-centric approach'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인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장은주 | Chang, Eun-Joo**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생존에서 존엄으로', '인권의 철학', '정치의 이동', 논문으로는 '유교적 근대성과 근대적 정체성', '한국 비판적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적-공화주의적 재구성' 등이 있다.

**정재왈 | Jung, Jae-wal**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예술학협동과정 초빙교수이다. 2006년 설립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관련 조사 및 연구, 컨설팅 및 공연예술과 시각예술 분야 국제사업을 주관하는 비영리재단이다. 10여 년 동안 중앙일보 문화부에서 공연예술과 영화, 출판, 학술, 방송 및 미디어 분야를 취재

---

했고, 이후 LG아트센터에서 운영부장, (재)서울예술단 이사장 및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세계 지식인 지도’, ‘뮤지컬-기획 제작 공연의 모든 것(역서)’ 등이 있다.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평론가,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이사, 한국발레협회 자문위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 **정정숙 | Chung, Jeong-Sook**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실 연구위원이다. 관심 분야는 지역문화, 문화교류, 국가브랜드 등이며, 동아시아포럼 위원, 미래전략연구원 사회문화분과 연구위원,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사회문화협력분과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 및 보고서로는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문화예술정책 개발 연구’, ‘아시아문화수도의 도입에 대한 기초연구’ 등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 **최준호 | Choe, Junho**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극원 교수이며 문화부 한류문화진흥자문위원 및 국립명동예술극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원장을 지냈다. 연극연출가로 활동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소 위원 및 예술의전당 공연예술감독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우리시대의 프랑스 연극(공저)’, ‘공연예술시장연구’ 등이 있으며 ‘프랑스, 한국 문화와 예술에 눈 뜨다’,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에 대한 고찰’ 등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와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파리 제3대학에서 연극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최혁진 | Choi, Hyuck Jin**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만들도록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10여년 동안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법인사무국에서 기획실장, 전무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했으며,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회 부이사장,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 이사회 이사 그리고 사회적기업 권역지원기관 강원도원주권역 총괄팀장 등을 역임했다.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허인정 | Heo, Injung**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이사장 및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는 기업의 문화 나눔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 컨설팅과 캠페인,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0여 년간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일한 뒤, CJ그룹 CSR팀장과 CJ나눔재단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와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홍익대학교에서 문화예술경영을 공부했다.

**홍진욱 | Hong, Jin-wook**

외교통상부 공공외교정책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1994년부터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며 주벨기에 EU대표부 1등서기관, 주뉴질랜드 참사관 등을 거쳐 대통령실(외교비서관실)에서 일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샌디에이고)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했다.

**황원규 | Hwang, Won-Gyu**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이며, 국제개발협력학회회장, 대통령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르완다 대통령실 정책자문관, 캄보디아 수상실 정책 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학에서 개발재정학 석사, 미국 텍사스대(오스틴)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경제학, 개발협력론, 국제지역경제론 및 국제경제관계론이다.

---

## 제 1 부 기초발제

### 문화권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

발표 |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 문화권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문화와 발전' 제2차 라운드테이블

정 정 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September 21, 2012

### Contents

- I 문화권과 인권
- II 발전과 국제개발협력
- III MDGs
- IV 문화지표와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 I -1. 문화의 개념과 범위

유네스코의 문화란?

### 문화의 포괄성과 특수성

\*문화는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의 **특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징의 **총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문화는 예술 및 문학 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

-UNESCO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중  
 -- 제 31차 UNESCO 총회(2001.11.02)에서 채택-  
*Reaffirming that culture **should be** regarded as **the set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of society or a social group, and that it encompasses, in addition to art and literature, lifestyles, ways of living together, value 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

## I - 2 문화권 주목 난이

- 공동체와 배타성:  
특정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체성에 근거한 배타성
- 인권충족단계:  
사회경제적 권리 이후 시도되어야 하는 예외적 권리라는 인권발달 순서
- 공동체 경계:  
신자유주의 조류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
- 보편상실 두려움:  
문화에 대한 논란 → 문화적 상대주의 → 보편주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I -3 문화적 보편 난이**

**인권의 문화적 보편주의는 가능한가?**

- 개념 차원: 세계인권선언1조.  
자유/인권/평등 등 보편적 인권에 대한 합의 가능
- 해석차원: 인권선언 18조, 19조.  
종교·표현의 자유 → 문화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ex) 1988 배리와 파레크 논쟁
- 실천차원: 인권선언 5조  
ex) 영국의 사형제도 폐지 → 대부분의 국가가 인권선언 5조 위반 간주

※ 세계인권선언:  
문화권에 대해 '해석'과 '실천'에 이르지 못하는 추상수준의 정의 제시

김남국(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인권선언에서 문화다양성협약까지. 국제정치논총, 제50집1호, 2010, pp.267-271

**I -4 문화권의 변천**

- 1948년
  - 세계인권선언
  - 27조 1항: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1966년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5조 문화생활 참여)
  -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 2001년
  -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 1조: 문화다양성은 인류공동의 유산
  - 4조: 문화다양성의 보호가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분리 불가

**Question.**

'문화권의 넓은 범위는 수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 문화권은 누구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  
누가 그러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가? 국가인가? 공공 혹은 민간기관인가?  
문화권이 침해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가? …… 한 국가가 이 권리를 보충하기를 원한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가?'  
(유네스코 세계보고서 :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의 대화, 2009)

김남국(2010),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인권선언에서 문화다양성협약까지. 국제정치논총, 제50집1호, 2010, pp.271-275

## II - 1 발전개념과 관점

### 발전이란?

- 1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서구식 민주주의가 발전의 지표로 간주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의 문화적 구성물 (Haggis, 2000)
- 2 -경제 성장을 넘어선 인간 발전  
(UNDP and Amartya Sen, 「인간개발보고서」, 1994)  
-좋은 삶에 대한 관념(가치관)은 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발전의 개념도 문화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여기서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주목
- 3 -서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경제 성장 중심의 발전 이데올로기는 '개발 원조'를 받은 공동체들의 사회조직과 토대에 손상을 입히는 경향이 있음.

‘문화와 발전’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발전’의 의미를 제고하는 것.

## II - 2 발전과 문화

### 인권과 발전(혹은 개발)은 불가분의 관계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발전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발전

#### ❖ 세계인권선언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지니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

### II - 3 문화와 발전



문화

1. 집단전승  
2. 문화다양성  
<선? 바람직성?>

1 - 문화는 발전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필수조건이다? -문화존중= 정체성, 인격존중  
-문화는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자원이다? 경제지원

2 - 불평등의 다양성과 문화다양성, 단순한 다양성에 찬?  
-문화다양성은 지구와 인류의 공동자산?  
-문화는 표현, 창조, 향유, 특히 표현되는 모든 것?

-문화를 고려한 발전  
-문화를 통한 발전  
<문화접촉, 문화창조>

### II - 4 발전권

#### '발전권에 관한 유엔 선언'(1986)

*"발전이란 주민과 모든 개인들이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기초로 하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지향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이다."*

제1조 발전권은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이고, 모든 인간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공헌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인간이 발전의 주체이고 참여자이며 수혜자이어야 한다.

\*이태주(2012), '개발효과성과 인권기반 ODA의 적용 과제', 외교정책과 ODA 제4차 KOICA-세종 콜로키엄 자료 pp.4-5 인용

### III - 1 MDGs의 의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2000년 UN회원국들이 전 세계 빈곤감소와 발전을 위한 총 8개의 글로벌 목표 채택

- 인간개발 강조, 결과중심의 패러다임 형성
- 글로벌 목표, 글로벌 규범(Global norm) 작용
- MDGs 달성을 위한 공여국의 원조규모 증가
- MDGs 중심 빈곤퇴치가 개도국 국가정책 우선사항

### III - 2 MDGs 목표 및 달성여부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비를 반감(○), 일다운 일자리 제공(X), 기아 인구 비를 반감(X)
2	보편적 초등교육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의 기회 제공(○)
3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교육에서 성별 간 차이 초. 중등교육 2005년, 모든 교육 2015년까지 제거(가능)
4	아동사망률 감소	1990-2015년간 5세 미만 아동사망률 2/3 감소(불확실)
5	모성보건 증진	1990-2015년간 산모사망률 3/4 감소, 2015년까지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X)
6	HIV/AIDS, 말라리아, 기타 질병퇴치	AIDS 확산 저지 및 감소, HIV/AIDS 치료의 보편적 보급(X)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저지 및 감소(일부가능)
7	지속가능 환경확보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국가정책으로 통합 및 환경자원 손실 복원(불확실) 생물다양성 감소 억제 및 감소율 저하(X) 식수 및 위생환경 부족 인구비를 반감(○) 최소 1억명 빈민가 거주자 생활여건의 현저한 향상(불확실)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체제 발전(불확실), 저개발국과 개도국의 특수 문제해결(불확실) 개도국 외채문제의 포괄적 해결(X),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정보통신 등의 신기술 혜택 확산(○)

-----> 8대 목표의 18개 세부목표 중 4개 달성, 6개 불확실, 8개 불가

### III - 3 MDGs 의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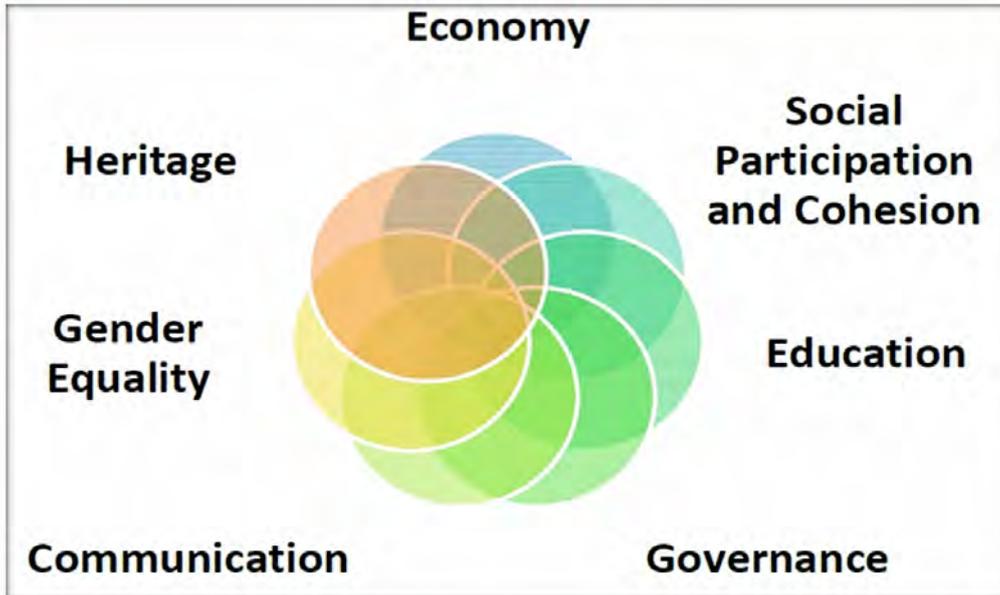
- 소수 선진공여국 주도로 개발, 개도국의 수요 및 MDGs 이행을 위한 국가별 역량차이 이해 부족
- 불평등, 인권,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 미포함
- 이행과정 소외계층의 불평등 상황 고려 부족

### III - 4 Post-2015 UN 개발아젠다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



\*KOICA, 2012 개발정책포커스 14호,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 IV - 1 Seven Dimen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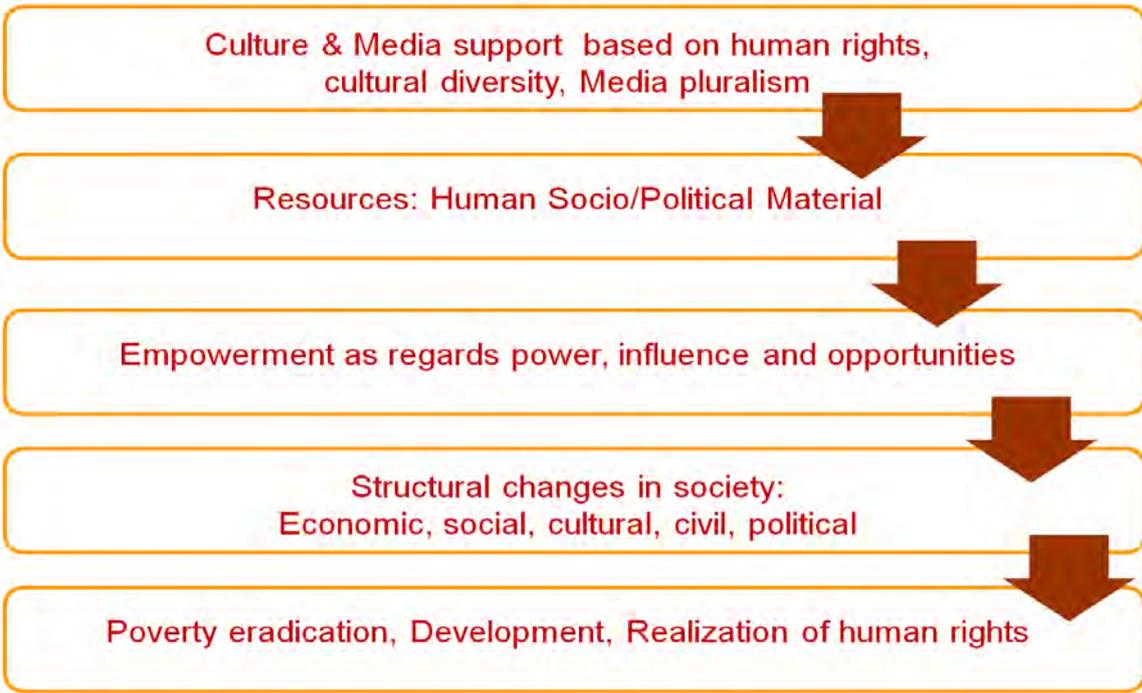
\*UNESCO(2005.12.05) Introduction to the UNESCO 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 Suite p.8 인용

### IV - 2 The Sub-dimensions of the Indicator Suite

Dimensions	Sub-dimensions
<b>Economy</b>	Added value of cultural activities, Employment in culture, Expenditures on culture
<b>Education</b>	Investment in human capital,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ppreciation and valorisation, Investment in highly trained cultural professionals
<b>Heritage</b>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Valorisation of cultural heritage
<b>Communication</b>	Freedom of expression, Enabling environment for communication, Cultural diversity of media
<b>Governance</b>	Enshrinement of cultural rights and promotion of culture at the normative level, Institutional capacities, Cultural infrastructur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cultural policy e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b>Participation and Social Cohesion</b>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Interpersonal trust, Freedom of self-determination
<b>Gender Equality</b>	Equal capacities to participate in culture, Equal opportunity to access public institutions

\*UNESCO(2005.12.05) Introduction to the UNESCO Culture for Development Indicator Suite p.9 인용

**IV - 3 문화적 지원 효과**



**IV- 4 사례:개발원조 성 주류화 기역 및 수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의 및 목표**

개발국의 남성과 여성 간 혜택,  
자원 및 기회의 평등

**방법 및 수단**

모든 개발협력에 성 평등 주류화  
개발활동에 여성 포함  
여성의 역량 강화하는 적극적 조치

**기준 및 이행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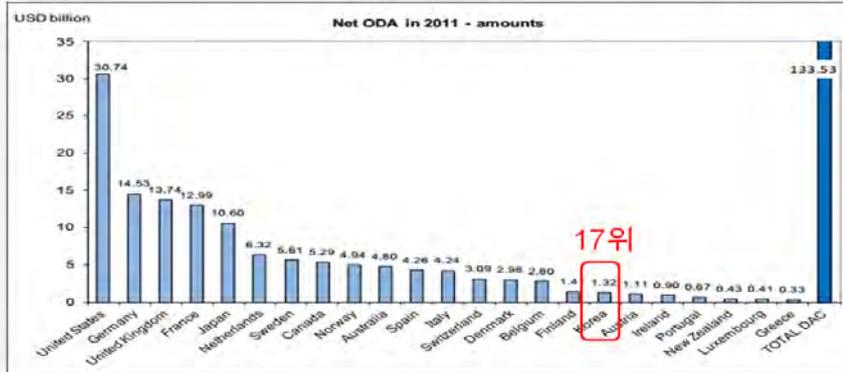
(a) 모든 사업문서에 성 평등 및 여성역량강화(개발에의 여성 포함)의 명시  
 (b) 사업추진 표준과정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혹은 별도로 성 분석 수행  
 (c) 사업구성요소(활동)에 성 분석 반영

사업활동에 있어 성 분석 반영의 구체적 기준	
예산, 전략, 이행계획	성인지적 전략과 이행계획 통합 여부와 이를 위한 예산 편성 여부
접근성 및 커뮤니케이션	여성참여에 장벽이 되는 요소 파악과 이를 극복할 구체적 수단 제안
동등한 참여 및 통제권	활동산출물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성인지적 지표 및 평가	영향지표 포함 성인지적 성과지표의 개발(모니터링&평가 위함)
성인지적 능력	사업 디자인과 이행 및 모니터링에 성인지적 능력 활용
젠더 컨설팅	성인지적 컨설팅을 모든 레벨과 단계에서 수행

### IV - 5 ODA 의 규모

2011년 DAC회원국 ODA 규모(2011년, 순지출 기준/ 단위 USD 10억, 2010년 고정달러)

\*자료: OECD, <http://www.oecd.org/dac/aidstatistics/50060310.pdf>, 검색일 2012.0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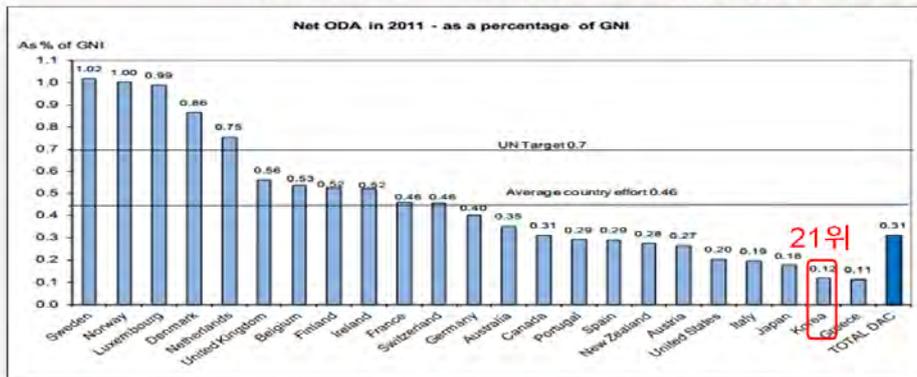
❖ 2011년 기준 100억불 이상의 원조 공여국:

미국(307.4억 불) → 독일(145.3억 불) → 영국(137.4억 불) → 프랑스(129.9억 불)  
→ 일본(106억 불)

### IV - 6 GNI 대비 ODA 비율

2011년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순지출 기준/ 단위:%)

\*자료: OECD, <http://www.oecd.org/dac/aidstatistics/50060310.pdf>, 검색일 2012.08.31



❖ 2011년 기준 GNI 대비 ODA 비율이 높은 국가:

스웨덴(1.02%), 노르웨이(1.00%), 룩셈부르크(0.99%), 덴마크(0.86%), 네덜란드(0.75%) 등이며, 이들 국가의 GNI 대비 ODA는 UN의 2015년 목표치인 0.7% 및 DAC 평균 0.31%보다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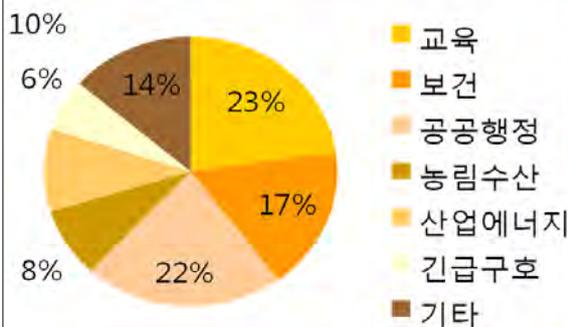
**IV -7 2011-2012 국가별 지원 현황**

	최빈개도국 (LDCs) 48개국	기타저소득국 (OLICs) 6개국 (per capita GNI ≤ \$1005 in 2010)	중하소득국 (LMICs) 40개 국 (per capita GNI \$1006- \$3975 in 2010)	중상소득국 (UMICs) 54개 국 (per capita GNI \$3976-\$12275 in 2010)
	원조금액	원조금액	원조금액	원조금액
<b>미국</b>	8,678	2,666	6,806	1,311
<b>영국</b>	2,591	1,017	1,172	242
<b>스웨덴</b>	819	160	407	72
<b>프랑스</b>	1,548	1,134	3,161	1,323
<b>일본</b>	2,742	1,864	6,855	1,254
<b>한국</b>	252	131	258	35

\*자료: OECD, <http://www.oecd.org/development/aidstatistics/>

**IV -8 우리나라 2002-2011년 사업 분야**

구분	교육	보건	공공 행정	농림 수산	산업 에너지	긴급 구호	기타	합계
<b>금액 (백만원)</b>	<b>617,044</b>	<b>464,333</b>	<b>601,833</b>	<b>224,977</b>	<b>270,137</b>	<b>169,634</b>	<b>369,961</b>	<b>2,717,918</b>



✓교육분야가 행정제도 분야와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예술교육과 문화다양성 인식제고에 대한 문화사업 개발가능성이 높음.

✓대내적으로 행정제도의 측면에서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우리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시스템과 인력양성제도의 제공이 고려될 수 있음.

**IV -9 DAC 원조목적 코드 속 문화 분야**

DAC 원조목적코드와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DAC 분류	분야 코드	DAC 분류	분야 코드	분야(한글/영문)
사회하부구조 및 서비스	1000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6000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	14000-		16010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업분야	30000-		16020	고용정책 및 행정관리
다부문	40000-		16030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일반프로그램 지원	50000-		16040	지비용주택개발
인도적 지원	70000-		16050	기초사회서비스 다부문원조
행정비용	91000-		16061	문화 및 레크레이션 /Culture and recreation
NGO 지원	32000-		16062	통계능력강화
비배분/비특정	99800-		16063	미약관리
부채관련 지원	60000-		16330	AIDS의 사회적 영향원회

2008년 문화여가사업 금액(commitment current USD millions 기준)의 경우 한국은 3.75로 16위 해당. - 1위인 프랑스(192) > 3위인 영국(84.1) > 5위인 미국(42.2) > 6위 스웨덴(26.1) > 7위인 일본(25.9) > 16위 한국(3.75) 순임--- 우리나라 전체 ODA의 0.26%

감사합니다. 

## 토론문: 문화권 관점에서 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ODA와 관련해서 한국은 긴 시간동안 원조 수원국으로 있었지만,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게다가 발표문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 한국의 ODA는 규모(13.2억 달러, 17위)로 보나 GNI 대비 비율(0.12%, 21위)로 보나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ODA 전체 액수 중에서 ‘문화’ 또는 ‘문화권’과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의 비중을, 그리고 지원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 비판, 대안마련 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 토론에서는 문화권과 관련한 큰 틀에서의 논의에 집중하도록 한다.

발표문은 국제개발협력이 문화(권)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그런 연결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선언과 국제규약들은 인권과 문화(권)가 사람들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가치임을 천명했는데, 따라서 ODA지원을 통해서 발전을 추구할 때에도 당연히 이것들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추구해야만 할 것이다. 인권과 문화를 중시하는 것은 결코 발전에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발표문(IV-3)에 따르면 인권과 문화다양성 등에 기초한 문화적 지원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빈곤퇴치와 발전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다. 옳은 말이고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을 일종의 기호로 표시해보면 ‘인권 ==> 발전’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 진행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발표문(II-2)의 표현처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발전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발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자면 “인권 <==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물질적 조건이 갖춰져야 하며, 그래서 ODA는 주로 경제적·물질적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인간답게 사는 것은 그런 조건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 이외에도, 그러니까 인권, 문화권, 문화다양성 등에도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MDGs의 한계를 지적한 발표문(III-3)의 내용<sup>1)</sup>은 참으로 적절하다.

다만 발표문에서 아쉬운 점은 인권과 문화권의 관계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1) ① 소수 선진공여국 주도로 개발, 개도국의 수요 및 MDGs 이행을 위한 국가별 역량차이 이해 부족, ② 불평등, 인권,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 미포함, ③ 이행과정 소외계층의 불평등 상황 고려 부족

차이나 갈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상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ODA 지원이 수원국의 문화권을 보장하거나 증진시킬 수는 있지만 주민들의 개별 인권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공여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하기에는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발전’만을 추구하자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닐 것이다. 수원국의 인권 상황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ODA 지원은 수원국에 대한 수출 증대가 중요한 결정요인임이 밝혀졌다. 즉 한국 정부는 (다른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무역 및 투자 관계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높은 국가들에게 더욱 많은 ODA를 제공해왔다는 뜻이다. 한편 각 수원국들의 인권관행은 한국의 ODA 배분과정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국 정부는 ODA 예산을 배분할 때 기업 활동의 증진과 같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인권 증진 등과 같은 수원국의 사회적 필요성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권과 관련해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즉 한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수원국의 문화권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못했을 것이라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중의 하나는 민간부문을 지원과 관련된 주요 결정 주체 중의 하나로 삼는 것이다. 지금까지 ODA는 국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정은 양 국가, 즉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정부는 인권과 문화(권)의 모든 측면들을 아우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억압적인 역할을 취하기도 한다. 각 나라(수원국)의 건강한 비정부기구들은 정부가 이루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부분들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정부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 공여국인 한국의 비정부기구들도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각 나라 비정부기구들의 국제적인 연결망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권과 문화(권)가 함께 고려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함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더 나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제 2 부 주제 발표 · 토론

---

### 한국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 주제 I. 한국 문화 ODA, 현황과 전망

발표 | 강주홍 국무총리실 개발협력기획과장

토론 |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

#### 주제 II.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흐름

발표 | 이태주 한성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토론 |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



## 한국 문화 ODA, 현황과 전망

강주홍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1. 들어가며

‘문화’와 ‘개발’은 각각은 친숙하나 ‘문화와 개발’, 그 중에서도 문화 ODA는 우리 ODA에서 아직은 신선하고 생소한 논의다. 그러나 개발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우리 ODA 정책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ODA 사업 또한 시행기관들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ODA 정책과 사업에서 문화 ODA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문화 ODA의 변모를 전망해본다.

### 2. 문화 ODA의 개념과 필요성

#### 1)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이 정한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국가 및 지역, 또는 다자간 개발협력 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을 말한다(OECD/DAC, 2001). 이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는 ①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②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고 ③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한다.

#### 2) 문화 ODA의 정의

문화 ODA는 개발도상국 주민의 자긍심과 정서를 존중하여 그들의 문화권 향유를 통한 복지 증진과 문화·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 분야의 인적·물적 지원활동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 ODA 사업의 정의는 외연적 해석과 내포적 해석이 가능하다. 외연적 해석(ODA of the cultural sector)은 가시적인 협의적 관점으로 문화분야 혹은 문화영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문화행정부문의 업무영역 콘텐츠를 활용한 ODA 사업을 말한다. 내포적 해석(ODA in the cultural perspective)은 모든

ODA 사업이 원조의 진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주민의 감성과 자긍심과 고유문화를 존중하면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ODA 사업수행자가 ODA 수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구비해야 할 가치규범적 측면을 말한다. 즉,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원국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이 중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편의상 외연적 해석에 의한 문화 ODA를 ‘문화분야 ODA 사업’으로, 내포적 해석에 의한 문화 ODA를 ‘문화인지 ODA’로 부르기로 한다.

### 3) 문화분야 ODA 사업의 분류

ODA에 관한 통계를 처리하는 OECD DAC에서 제시한 DAC의 원조목적코드표에 따르면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가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스’ 부문 아래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으로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속하는 사업을 다시 내용에 따라 i)장비 지원(음악, 영상·미디어, 스포츠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장비 제공과 기술 교육)을 말하고, ii)시설 부문 지원(극장, 문화센터, 도서관·박물관·미술관, 기록물 보관소 등의 설립과 관리 및 운영 지원), iii)프로그램 지원(예술, 스포츠, 언어·문학, 미디어,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역량 개발 등)으로 대별하기도 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문화사업 외에도 문화사업의 연계가능분야로서 가내수공업과 공예 산업에서 기술 및 디자인 교육관련 프로그램, 섬유 및 가죽과 장식물 사업에서의 기술과 디자인, 공동체 형성 지원 등이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3. 한국 문화 ODA의 현주소

### 1) 한국 ODA의 현황 : 실적 및 추진 체계

우리 정부는 1963년부터 미국개발원조청(USAID)의 자금지원을 받아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를 시작한 이래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창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등으로 원조의 틀을 갖추면서 1990년대부터 대외원조를 본격화하게 되었다. 2003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간지원, 세계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에의 출연·출자 증가 등으로 유·무상 예산이 2005~2011년간 연평균 15.4% 늘어나면서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EDCF가 설립된 1987년

부터 2011년까지 총 원조규모는 약 94억불('11년 13.2억불)로 우리나라가 받았던 수원액에 비해 여전히 적고 ODA/GNI 비율도 0.12%에 불과해 OECD의 2010년도 목표였던 GNI 대비 0.35%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고, 총규모 면에서는 DAC 회원국 23개국 중 17위로, GNI 비율과 1인당 ODA 규모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국무총리실, 2010, 수출입은행, 2012). 원조구성('00~'10년)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약 65%, 아프리카 약 12%, 중남미 약 8% 순이며, 사업형태별로는 프로젝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표1 : ODA 예산의 연도별 추이〉

자료 : 국무총리실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 ODA	7,971	4,902	6,820	9,288	10,941	13,607	14,631
(ODA/GNI, %)	(0.10)	(0.05)	(0.07)	(0.09)	(0.10)	(0.12)	(0.12)
○ 양자간 협력	4,943	3,835	4,910	6,208	8,034	10,024	10,745
▪무상원조 (KOICA 등)	3,257	2,474	3,357	3,877	4,418	5,324	6,180
▪유상원조 (EDCF)	1,686	1,361	1,553	2,331	3,616	4,700	4,565
○ 다자간 협력	3,028	1,067	1,910	3,080	2,907	3,583	3,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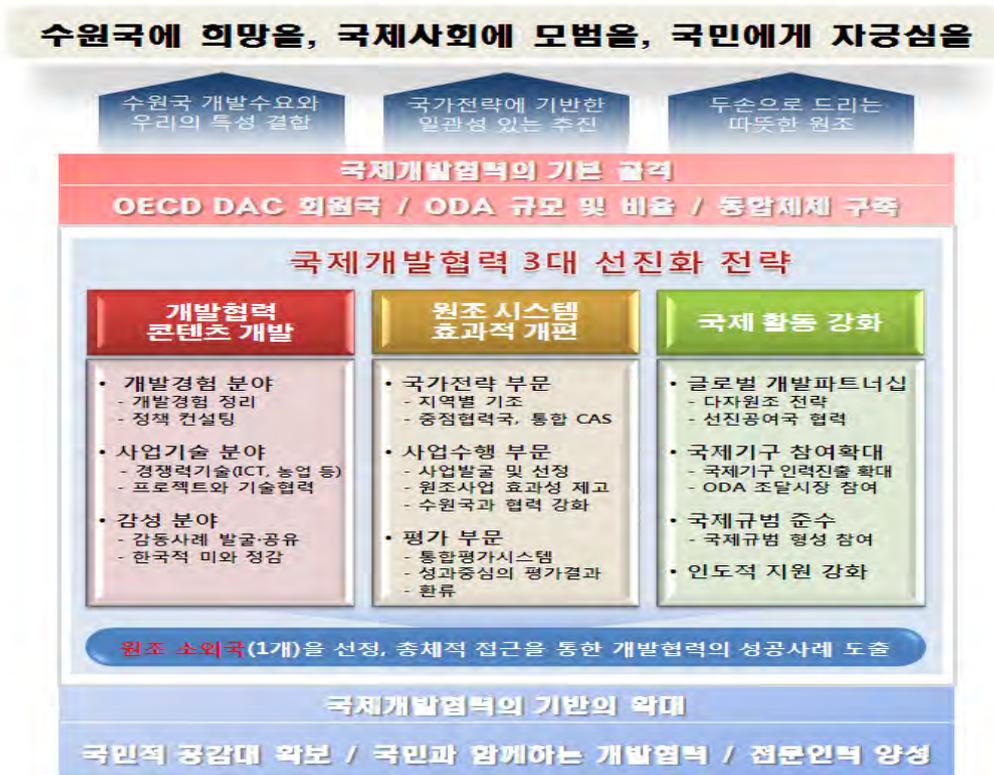
\*총예산 규모 : ('05) 208.7조원 → ('11) 309.1조원, 연평균 8.17%증가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에 24번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통합적인 대외원조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시행('10.7)하고, ODA 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포함하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10.10월,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제정하였다. 선진화방안의 틀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방안을 담은 5개년 계획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고('10.12월,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법적 기반 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된 최상위의 정책인 선진화 방안은 원조를 철저히 수원국 중심으로 겸손하게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i)우리나라 원조를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ii)분절화된 원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편하며 iii)우리나라의 특성을 원조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다. 특히, 개별 국가에 대한 ODA 사업 추진 시 유무상 통합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26개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국가지원계획(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ODA 지원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여 수원국의 발전단계와 수요, 여타

공여기관의 지원 활동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1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개념도>



한편 ODA 추진체제 측면에서 우리나라 원조의 가장 큰 특징은 다원화이다. 양자 원조 중 유상은 기획재정부가, 무상은 외교부와 30여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다자원조 중 국제금융기구는 재정부가, UN 등 기타기구는 외교부와 일반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우리의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추진체제가 필요하며, 그 역할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며, i)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연간시행계획, ii)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평가, iii)국제개발협력 관련 범정부차원의 조정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10년에 국무총리실에 개발협력정책관실을 설치하였다.

2) 한국 문화 ODA의 현주소

한국 문화 ODA의 현황을 주요 정책문서상의 '문화인지 ODA'와 각 시행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문화분야 ODA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가. 문화인지 ODA

‘문화인지 ODA’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CPS상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선진화 방안의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 중 하나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분야가 있는데 이는 개발협력 콘텐츠를 i)개발경험, ii)사업기술, iii)감성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조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중 감성분야 콘텐츠는 외교부·문화부가 총괄기관으로서 KOICA·수출입은행(EDCF) 등 ODA 시행기관이 보유한 기존의 감동적인 ODA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발한다. 이는 기존의 원조가 공여국 위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신흥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공여국 위주가 아닌 수원국 위주의 원조를 지향하여 ‘진정성’이 느껴지는 원조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 중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내용

- ◇ (개발경험)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우수한 정책·제도로서 개도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례로서 원조수요가 많은 8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
  - \* 경제, 보건의료, 인적자원, 행정·ICT, 농어업,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환경 등
- ◇ (사업기술) 현재 우리가 보유한 사업기술로서 개도국에 효과가 큰 ODA 사업 목록(Inventory)을 정리
- ◇ (감성분야) 특유의 한국적 감성 또는 아름다움을 가미하거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감동사례를 정리하여 ODA 부가가치 제고에 활용

수원국 현장에서 선진화 방안을 이행하는데 기본 지침이 되는 CPS상에는 문화인지 ODA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10.9월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통합 CPS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개발에 사회(인구, 인종, 종교, 문화, 교육, 보건, 도시화, 자연재해 취약성 등) 현황을 조사하고, 국가개발현황으로서 인간개발지수(HDI)의 분석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문화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수립된 CPS에는 해당 국가에서 ODA 추진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문화적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 CPS상 해당국가의 문화에 대한 고려 필요성 언급 사례

- ◇ (베트남) 베트남의 사회주의적 특징 및 문화 존중
  - 지역간·계층간·성별 ‘평등’을 강조
  - 다민족 국가임을 고려, 소수민족의 생활풍습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 ◇ (솔로몬군도) 솔로몬군도의 전통과 문화 존중 필요
  - 다양한 인종과 1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지역과 부족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 부족중심 사회구조로 원조의 지역적 형평성을 반영하여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부족과의 좋은 관계 유지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

◇ (볼리비아) 다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 고려

- 인종, 언어,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고려 필요

시행기관 차원에서도 ‘문화인지 ODA’를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초창기부터 해외과건봉사단에 대하여 국내 및 현지적응훈련을 통하여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해당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ODA교육원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다문화와 개발협력의 관계를 원조사업 참여 전문가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EDCF에서 작성중인 세이프가드 안에는 ODA 추진시 사회적 고려의 하나로 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 나. 문화분야 ODA 사업

‘문화분야 ODA 사업’은 KOICA, EDCF 등 ODA 시행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문화 관련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다. KOICA는 문화정책과 문화인프라, 문화역량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분야 ODA를 ‘10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각 시행기관 별 사업실적은 아래에서 소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동반자 사업 : 전문기술 이전 · 한국어 학습 · 문화탐방 등을 통해 동반자 · 공존관계를 구축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아시아 · 아프리카 중심의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젊고 유망한 문화예술전문가를 초청 ('06~'11년 70개국 638명 초청, 지원총규모 132.5억원)
-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사업 : 개도국 창조산업 발전지원 및 국제기구와의 사업협력 강화하기 위하여 '07년부터 '12년까지 3차에 걸쳐 몽골, 베트남 전통수공예발전/문화원형디지털사업(1차 사업),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전통 수공예 보존 발전(2차 사업),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브루기나파소 등의 창조산업 지속가능성 강화(3차 사업) 등을 지원

- 해외 작은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 : 개도국 작은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국의 문화산업 발전 및 범세계적 파트너십 구축하고자 UN-WTO STEP 재단과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작은 도서관 조성(리모델링), 컴퓨터 · 서가 · 책상 등 비품, 도서(전문가선정, 2~3천권) 마련 등을 지원

\* WTO STEP(Sustainable Tourism for Eliminating Poverty, 지속가능 관광을 통한 빈곤경감) 재단은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통한 개도국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2005년 UN WTO(세계관광기구) 제16차 총회 승인을 통해 한국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사장:도영심)

- WIPO 신탁기금 사업 : WIPO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저작권 보호 인식향상 도모 및 저작권 정책 선진화를 지원함. 저작권정책 선진화 및 보호강화를 통한 WIPO내 개도국회원국 문화콘텐츠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환경 개선으로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강화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1976년 지식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로서 지적재산권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 특허를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 한국은 1979년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 현재 회원은 약 184개국,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나눔으로 발전하는 ODA 강화’ 추진 계획

- ◇ (정책방향) 타 문화권과의 지속가능한 교류 · 협력 강화와 문화 ODA를 통한 문화다양성 증진과 국제사회 기여 확대
- ◇ (실천계획) ‘문화와 발전’ 논의 및 국제회의 유치, 유네스코, WIPO등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강화, 개도국의 박물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시아 우수예술인재 유치양성 사업 확대,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사업 실시, 국제경기대회 성공 개최경험 원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설립

<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유산 관련 전문 기술을 전파, 우리나라 위상 제고 및 국제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개도국의 문화재 보존, 관리 기법 전수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 (2007-2012년 총 사업비 약 11억원)
  - 베트남 후에시(市) 황성 디지털 복원(170백만원 / '07년, '08년)
  - 몽골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 지원(60백만원 / '09년, '10년)
  - 스리랑카 문화재 보존처리 장비 지원  
(각 70백만원 / 스리랑카, 캄보디아 / '09년, '10년)
  - 저개발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223백만원 / 라오스, 캄보디아 / '11년, '12년)
  -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 지원  
(180백만원 / 라오스, 부탄, 피지, 미얀마 / '11년, '12년)
  -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지원  
(185백만원 / 아시아 10개국, 아프리카 10개국 / '11년, '12년)
  - 문화재 보존처리 장비 지원(95백만원 / 몽골, 미정 / '11년, '12년)

<KOICA>

-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 포장, 연장사업 :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시엠립 지역의 도로가 유적지를 관통하여 유적지 훼손이 심각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대체할 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KOICA는 '05-'06년, '08-'09년, '10-'12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510만불 규모로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 포장, 연장을 추진
- KOICA의 이집트, 콜롬비아의 문화자산 전산화 사업 : 이집트, 콜롬비아에 각각 문화재청 유물전산화 사업('07-'09년, 사업비 200만불), 역사자료 전산화 사업('10-'11년)을 통하여 문화유물 및 역사자료에 대한 전산화 (DB 기반 및 사료 보존 시스템의 현대화, 역사자료 전산화 시스템 지원 및 구축, IT 인프라 개선) 구축
- 페루 꼬라오 지역개발사업 : 페루 쿠스코(CUSCO)지역의 작은 시골마을(꼬라오)에서 활동하던 해외봉사단원이 2004년 마을주민들로부터 기증받은

5000평의 부지위에 관광단지화를 위한 도예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장, 전시 판매장 및 휴게 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자기 제작 및 판매를 통해 소득 창출에 기여('10-'11, 사업규모 100만불)

- 카자흐스탄, 우즈베크 관광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 카자흐스탄 관광산업진흥 마스터플랜 수립사업('07-'08년, 사업규모 100만불)으로 카자흐스탄의 국내관광 활성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관광산업진흥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해외봉사단원 활동으로 '고대 호레즘 문화축제' 지원, '사마르칸트 한국어판 안내책자' 제작 등(각각 5만불 이내 소규모 현장사업으로 실시)
- 몽골 게르촌 청소년 문화센터 사업 : KOICA는 한국의 NGO인 지구촌공생회와 협력하여 게르 빈민지역에 청소년 센터 건립 및 도서관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실시('09년, 4만불)하여 도시 빈민 청소년들에게 쉼터, 배움 및 문화 공간을 마련, 몽골 대학생들과의 자원봉사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

한편 국무총리실에서는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비교우위가 있고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가능한 분야별 개발 콘텐츠 정리를 집대성하고 있는데, 문화분야(예술, 스포츠, 언어·문학, 미디어, 문화유산보호 등의 분야)에서 '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한국형 ODA 모델 : '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 주요 내용

- ◇ (목표) 수원국의 역사문화자원의 효율적 보존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경쟁력 제고
- ◇ (구성요소) 역사문화자산 및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후속 사업연계 프로그램 작성 등
  - 세부사업 프로그램으로 고도읍의 역사적 진정성 보존계획수립, 역사문화환경 조성 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교육 및 관광활성화 계획 등
- ◇ (선정사유) 개도국의 문화특성을 반영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실업해소 및 경제성장에 기여 가능
  - (한국의 비교우위) 단기간 압축성장에 따라 다소 등한시되었던 문화유산보존계획의 발전과정의 교훈을 밑거름 삼아 개도국의 환경에 맞는 문화유산 보존 계획 수립 지원이 가능하며,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수립되었던 우리의 경험을 살려 개도국에도 단기간 적용이 용이

### 3) 한국 문화 ODA 현황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 ODA 현황을 살펴보았다. 관련 분야 ODA 사업실적과 정책적 시도가 있었지만, 문화 ODA는 우리 ODA 전반이 가진 특징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 ODA에서도 우리의 경험을 활용한 선진국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30여개 이상 다수의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기관별 비교우위에 따른 역할분담이 미흡한 점, 그리고 수원국에 대한 전략(CPS)은 마련하고 있으나 분야별 전략 수립이 부재한 것과 같은 우리 ODA 전반이 가진 특징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ODA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이에 대한 담론형성이나 심화된 정책 수립은 환경, 젠더, 인권 등 타 분야에 비해 미흡했다. 그리고 외국과의 문화적 교류와 협력은 활발했으나 그에 비해 개도국에 대한 문화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인지 ODA 담론형성이나 문화분야 ODA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간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 부족, 문화인사와 ODA인사간의 인적 교류 미흡 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문화인지 ODA는 국제개발협력선진화 방안의 3대 전략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ODA 사업 모델에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진전되지 않은 채 여전히 추진과제로 남아있다. 문화인지 ODA는 감성분야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환경, 젠더, 인권과 같은 범분야이슈(cross-cutting issue)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범정부 차원과 시행기관 차원에서도 범분야 이슈로서 문화를 ODA에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은 다른 범분야 이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분야 ODA에 대한 콘텐츠 정리가 거의 되어있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문화를 우리의 개발경험을 통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로서 바라보는 인식이 약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K-pop,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 문화산업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비교적 등한시 되어온 문화분야는 우리

의 개발경험을 ODA 사업의 콘텐츠로 정리할 만큼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문화 ODA에 대한 전략과 정책의 미비, 그리고 문화분야 ODA 사업에서의 콘텐츠 부족과 더불어서 민간 차원에서도 문화와 개발협력, 그리고 문화분야의 개발협력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형성이나, 이들의 활발한 ODA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는 단기간내 압축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문화와 개발의 교집합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육성이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학계, 기업, 연구소 등의 활발한 참여가 없이는 문화인식 ODA에 대한 담론 형성이나 문화분야 ODA 사업의 확대도 요원하다.

#### 4. 한국 문화 ODA의 전망

문화인지 ODA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화’가 갖는 포괄성과 그 모호성으로 인하여 '그래서 어떻게(so what?)' 라는 물음에 정확한 방침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우선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전략 수립 차원에서 ‘감성분야’를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대외원조의 경험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가치적인 지침들을 모아보는 일이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행기관 별로 가지고 있는 문화인지 ODA 가이드라인과 범분야 이슈로서 문화를 주류화하는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면서,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ODA 시행기관은 물론 개발협력 파트너인 NGO, 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화분야 ODA 사업이 장차 어떻게 확대·발전하게 될지는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장점을 문화분야에 접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축적된 경험들이 수원국 저마다의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 문화분야 ODA 사업들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문화와 SOC 건설, 문화와 ICT 등을 결합한 대규모 사업에서부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 개도국 주민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문화산업 등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이렇게 우리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문화분야 사업을 개발, 발굴함으로써 양자 원조는 물론이고 국제기구 또는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을 통한 원조 분업에 적극 참여하고, 원조 분업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문화 ODA의 미래는 현재 민과 관에서 문화 ODA 관련 분야에 있는 종사자와 전문가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인류학, 지리학, 사회학 등 기존에 ODA와 관련성이 낮아보였던 학문영역의 연구성과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육성된 해외 지역 전문가들, 그리고 문화 정책을 입안해온 공무원과 연구자들의 관심이 문화 ODA에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내재적인 문화역량이 우리 문화 ODA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다. 월론적으로 들리는 이 이야기는 1990년대 초부터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 IT 기술이 10여년 뒤에는 우리 ODA의 비교우위로 인식되어 정부, 교육,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ODA를 차별화해준 간판스타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무모한 상상은 아닐 것이다.

## 5. 나오며

ODA 사업은 수원국의 수요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문화 ODA는 수원국의 자발적인 수요와 고려가 부족한 부분이다. 수원국은 개발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면서 고유의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고,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장기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은 단기적인 경제개발에 밀려나기 쉽다. 이는 다름 아닌 우리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다.

우리에게는 문화를 인지한 개발, 문화 산업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그 역사가 서구사회에 비해 일천하며, 개발 과정에서 고유문화의 상실, 문화를 경시한 경쟁위주의 삶이 주는 고단함 등을 몸소 체험하였다. 그리고 또 다시 단기간에 상실된 문화를 복원하고, 삶의 고단함과 지루함을 해소해주는 문화 상품의 개발에서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역동적인 경험을 통하여 수원국 내에서도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개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가져다주는 유무형의 부가가치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수원국이 보다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것도 문화 ODA에서 우리의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 참고문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한국국제협력단(2010).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  
 UNESCO(2010). The Power of Culture for Development  
 UNESCO(2001)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 토론문: 한국 문화 ODA, 현황과 전망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

### 1. 문화 ODA, 보다 폭넓은 접근법이 필요

- 공적개발원조에 있어 문화적 관점이 부각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문화’라는 용어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화 ODA’가 ‘문화적 관점에서의 공적개발원조’가 아닌 ‘ODA의 한 분야’로 축소 해석될 위험이 있음
- 문화 ODA를 ‘문화적 관점에서의 공적개발원조’로 이해한다면 모든 ODA 사업은 발제자가 말하는 것처럼 수원국 중심으로 즉 수원국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교육수준, 종교 및 생활풍습을 고려하면서 해당 수원국의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부문별 접근에서 생태계적 접근으로 이동)
- 발제자는 이러한 관점을 ‘문화인지 ODA’ 라고 ‘문화분야 ODA’ 구분하고 있는데 ‘문화인지 ODA’를 문화적 관점에서의 공적개발원조로 폭넓게 재해석하고 이를 ‘문화분야 ODA’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ODA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함
- 그렇지만 문화적 관점에서의 ODA가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까지 확대해석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수원국 중심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ODA를 재해석하더라도 인류사회발전의 보편적 원칙들, 즉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의 발전, 양성평등과 같은 공동의 목표가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다만 그러한 목표로 나아가는 경로와 방식에 있어 문화적 조건에 따른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ODA 사업이 여러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관점이 중요할 것

### 2. 문화적 관점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

- 정부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고 통합적인 접근체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함께 민간차원에서도 부문별, 분야별 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수원국 또는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한 지역이 지속가능하려면 교육, 의료,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

- 며 동시에 이러한 기능을 스스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리더십과 자조 역량 그리고 이에 기반한 주민의 경제사회적 조직과 이를 통한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져야 함
- 이러한 조건 위에서 그들만의 독창적인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전통이 경제적 기능과 결합되어 문화분야의 산업으로까지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그동안의 ODA 사업이 일반적으로 보여준 시혜적 성격에서 탈피하고 또한 부문별, 분야별 지원방식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장차 수원국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재설정하여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한국 사회는 마을만들기 운동,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통한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등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시민적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화의 경험도 축적하고 있기에 문화적 관점에서 그리고 생태계적 관점에서 ODA 사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기존의 ODA 사업에 결합되어 보다 폭넓고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탈리아 민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연합체인 트렌토 협동조합연맹이 남미의 에콰도르 지역재생에서 보여준 모습은 현재 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트렌토 협동조합연맹은 에콰도르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경제조직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교육을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에콰도르 정부를 설득하고 도와 협동조합 법제도를 정비하였음
  - 교육사업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내적 환경과 문화에 기반한 발전전략 수립, 협동조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기반 마련, 정부제도의 변화와 협력을 통한 안정된 제도환경 조성 등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성공적인 개발사례를 만들어낸 것임
- 문화적 접근이라는 것은 수원국 중심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한 사회의 발전은 대단히 다양한 사회경제적 구성 요소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그 사회의 생태계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

을 것임

-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ODA 사업을 새롭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이며 협력적인 접근방법을 구성해나갈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발제자가 제시한 SOC 건설 등의 하드웨어 구축의 경험 및 문화산업화의 경험에 더하여 앞서 말한 지역재생 및 마을만들기운동,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제도화 경험, 다양한 주민운동과 민주시민교육의 노하우들이 기존 ODA 사업 속에 결합되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주민역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접근방법의 변화와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됨
-

##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흐름

이 태 주(한성대학교, ODA Watch 대표)

### 문화와 발전(백범일지)-문화협력 헌장

-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 부탄과 행복지수

- Gross National Happiness and Development
- 발전에 대한 부탄의 독특한 문화 접근법
- 개발국가(development state) vs. 행복국가(GNH state)
- 행복-발전-문화-경제-환경-종교-교육-공동체
- 경제 개발 중심에서 인간과 문화 중심 발전으로

## 국제개발협력의 전환기 담론

- 다중 위기의 심화(식량, 재정, 금융, 개발, 분쟁, 환경, 재난)
- 죽은 원조(dead aid)에 대한 반성과 원조효과성
- 로마-파리-아크라-부산
- 원조에서 개발협력으로(beyond aid)
- 개발주체와 방식의 다각화
- MDG와 SDG, post-MDG
- 빈곤과 개발의 다차원성, 연계성 강조
- 개발주권(ownership)과 파트너십 중요성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지역공동체)

## 발전과 문화의 재구상

- 문화는 발전의 본질이고 궁극이다(생고르)
- 인간적 문화적 맥락과 결별한 개발은 영혼이 없는 성장이다(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 문화는 국제개발협력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며 특히 양성평등, 환경, 인권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요인이다
- 생물종과 문화다양성이 지속가능 세계의 근간
- 문화는 지속가능 인간발전의 근본 요인

## 국제사회의 문화와 발전 논의

- 세계인권선언(1948)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 세계문화정책회의(1982)
- 발전권 선언(1986)
-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1995)
- 스톡홀름 문화와 발전 정부간회의(1998)
- 문화다양성 보편선언(2001)
- UNDP 인간개발보고서(2004)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2005)
- 세계화와 상호의존 제66차 유엔총회 결의안(2011)
- 리오+20와 우리가 원하는 미래(2012)

## 문화 가치와 인류 발전 프로젝트

- 문화가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 낸다(David Landes)
- 저개발은 마음의 상태이다(Lawrence Harrison)
- 경제발전의 문화적 유형(Mariano Grondona)
- 아프리카는 문화 조정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가(Daniel Etounga-Manguelle)
- 도덕적 지도와 새로운 복음 전도자(Richard Shweder)
- 사회자본(Francis Fukuyama)
- 문화와 민주주의, 문화와 젠더, 인권, 문화와 시장 등에 대한 세기적 연구와 심포지움

## 문화와 가치

- 도구적 가치 vs. 본질적(보편) 가치
- 발전도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 발전=서구, 근대화, 기술, 물질, 가치관의 이식
- 풍요한 소비사회가 인류 보편 목표는 아님
- 생명, 건강, 자유, 번영, 교육, 정의, 행복
- 개발론에 문화가 함몰(도구화)되어서는 안됨
- 문화의 변화를 통한 보편가치 실현

## 문화상대성과 발전 문제-인류학 논쟁

- 개발인류학 vs. 발전인류학
- 빈곤의 문화 논쟁
- 식민주의와 근대화: 발전은 새로운 복음인가?
- 탈발전 시대- 발전의 문화적 성찰
- 국제개발과 원조의 문화지
- 참여인류학과 인간중심 발전
- 발전의 다양한 길과 문화다양성

## CID와 CAD

- CID(culture in development)
- 문화의 도구적 입장, 발전과정에서 문화의 중요성
- 문화정체성, 예술, 거버넌스, 건강, 자연자원, 젠더, 언어와 교육, 가치체계, 유형 무형유산, 문화산업
- CAD(culture and development)
- 문화와 발전의 상호관계, 문화의 본질성, 목적성
- 발전의 목적으로서 문화와 가치 주목
- 행복, 정체성, 공동체, 자유, 평화, 지속가능성의 기반

## 지속가능발전의 넷째 축인 문화

- SD의 3축인 사회, 경제, 환경에 문화를 추가
- 사회정의: 권한강화, 참여, 사회이동성, 사회통합, 제도발전
- 생태균형: 자연자원관리, 생물종다양성, 수용능력, 생태계
- 문화정체성: 문화정체성, 유무형문화유산, 문화산업, 문화다원주의, 지역문화
- 자립: 균형성장, 공정무역, 평등, 상호협력

## Rio+20: The Future We Want

- green economy policie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 should:
- enhance the welfare of indigenous peoples and their communities, other local and traditional communities, and ethnic minorities, recognizing and supporting **their identity, culture and interests and avoid endangering their cultural heritage, practi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preserving and **respecting non-market approaches** that contribute to the eradication of poverty;

##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AECID)의 문화와 발전 7대 전략

- 문화 관리를 위한 인적 자본의 형성과 문화와 발전에 집중하는 프로젝트 우선 강조
-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의 정치적 차원
-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의 경제적 차원
- 교육과 문화의 상호보완적 관계
- 발전을 위한 문화 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의 관계
- 문화권의 인식 증진

## 프랑스 개발청(AFD)의 문화와 발전

- ‘지식과 문화의 생산과 교류 증진’이 개발협력의 5대 비전 중 하나임
- 문화와 발전에 관한 연구 사업 지원
- 불어 사용지역 개발도상국 중점 지원
- 문화와 발전의 상호 영향력과 상호관계 주목
- 문화는 발전에 장애 요인 vs. 문화는 기술과 경제에 증속
- 개발협력을 문화변동 관점에서 효과 분석

## 문화와 발전을 위한 창조적 교류(DFID)

- 아마르차 센 교수 “문화가 어떻게 발전에 작동하는가?”를 이해해야
- 문화는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영역
- culture is embedded in development
- 5개 단체, 40국, 350사업, 3천만 파운드 지원
- 영 연방재단(Commonwealth Foundation)은 문화 우선사업(Putting Culture First) 별도 수행
- (경제성장, 문화다양성, 발전의 문화적 접근, 문화 표현, 정체성, 변화를 위한 예술, 인권 등 분야)

## 덴마크 문화 발전 센터(DCCD)

- 아프리카 창조산업을 위한 지역사업
- 아시아 문화부문 지원사업(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
- 영화, 문학, 음악, 극장, 영상예술, 미디어 산업 육성

## USAID의 문화와 발전 지역 파트너십

- 3년간 중동 북아프리카지역(MENA) 사업 수행
- 이집트, 예멘, 가자지구, 레바논, 요르단, 모로코, 이라크 등
- 지역의 개발경험과 지식 공유 연구사업
- RPCD Digital Library 구축
- 파트너십 포럼
- 청년, 시민 참여교육

## 다자간 문화협력

- 유엔 밀레니엄 기금(MDG Fund)-50국 130개 공동사업(NGO, 민간기업, 시민사회)
- UNESCO의 문화 발전 지표 사업(경제, 교육, 유산,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사회, 성평등)
- UNDP
- IDB의 중남미 문화발전 사업(미주문화발전재단, ICDF)
- ICACD(아프리카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

## 문화분야 우선 협력분야

- 문화유산과 전통지식(7개) :
- 문화유산보호 정책결정에 지역사회 참여
- 문화와 자연유산 관리능력 증진
- 지속가능한 유산관리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
- 자원관리와 거버넌스를 위한 지역사회 능력 배양
- 전통지식 기록과 관습적 문화가치와 전통 보존 사업 개발
- 기초교육에서 토착 지역지식과 전통가치를 전승
- 토착언어의 기록과 학교 교과과정 통합 및 출판

## 문화분야 우선 협력분야

- 문화산업과 기업가 정신(6개)
- 예술, 예술관리, 문화유산관리, 문화창업분야에서 교육훈련과 능력 배양
- 경제 다각화와 고용, 수출을 촉진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강화하는 문화산업 투자
- 문화, 무역, 산업, 관광, 교육, 지적소유권 등 분야에서 정부와 문화산업 간에 협의 강화
- 창조산업에서 지적 소유권 보호와 관리 강화
- 문화상품과 서비스, 지적소유권의 마케팅과 권리 옹호를 위한 제도 능력 구축
- 개발재원과 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과 신용대출 접근 개선

## 문화와 발전의 범분야 접근법 도입

- CAD는 GAD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법
- 국제개발의 획일적, 단선적 접근법 지양
- 문화다양성과 발전의 다양한 길 존중
- 개발주권(ownership) 존중과 주민참여
- 지적, 문화적 창의성과 자율성, 문화적 자유 중시
- 문화는 제도의 어머니(제도적 역량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 내생적 발전의 필요조건
- 총체적, 참여적 접근법

## 개발을 넘어서(beyond development)

- 서구화, 근대화, 기술주의, 물질주의, 개발주의 극복이 문화와 발전의 근본 과제
- 발전의 역동적, 중층적, 다양한 과정
- 탈발전 시대 가치와 본질, 지속가능한 세계 회복
- 세계화의 획일성 일방성 극복
- 빈곤에 대한 문화적 정의 필요
- Post-MDG 에서 문화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중시
- 권리와 인권중심 접근(RBA) 필요
- 기후변화 대응도 문화적 접근이 중요

## 우리나라 개발협력에의 제안

- 국제개발 헌장 제정(비전과 이념, 철학 정립)
- Post-MDG에의 실질적 기여(문화적 접근)
- 지속가능성과 생물종, 문화다양성의 통합
- 인권기반 접근과 문화적 접근의 통합
- *인프라 중심 개발사업에서 문화기반 사업으로*
- *공여국 중심에서 문화다양성으로*
- *경제개발 중심에서 지식기반 창조역량 개발로*
- *개발주권과 지역참여 필수 조건으로*
- IT 기술을 활용한 지역지식과 문화 활용 사업(예)

## 문화와 국제개발협력(백범일지)

-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며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세계 7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 그래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 토론문: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흐름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 1. 우선, ‘개발’과 ‘발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Development를 어떤 용어로 번역해야 할 것인가?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할 경우 문화의 속성과 충돌되는 것으로 보임.
-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개발은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개척하여 유용하게 만들고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하며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하며 새로운 물건이나 생각 따위를 만든다는 의미로 타율적이고 외발적인 변화’라고 하면 발전은 ‘더 나은 또는 더 좋은 상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자립적이고 내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함.

### 2. 발전과 문화의 관계 및 재구상 -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원조란 ‘물품이나 돈 따위로 도와주는 것’임. 문화는 그 자체로 원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문화분야의 원조라고 할 때는 문화의 ‘무엇’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또한 경제개발에서의 발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문화분야 원조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발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3.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의 이해

- 문화유산 등 보존 대상이 분명한 분야 - 보존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 정부,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의 관리역량 강화 분야 - 지속가능한 관리 및 거버넌스를 위한 인적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문화산업, 창조산업 등 시장연계 사업 분야 - 지적소유권,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권리, 고용, 투자, 그리고 협업방식 등은 어떻게 협의/합의해야 하는가
- 유형(문화유산, 문화상품 등)과 무형(문화교육, 의 분야에 대한 각기 다른 접근법 요구.
- GO는 국가 간 이해관계 속에서 외교적 수단이나 국가이익과 관련되어 참여한

다면, NGO는 보다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봄. GO의 역할과 NGO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협력의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봄.

#### 4. 범분야 접근법 도입

· 지속가능발전의 넷째 축, 다시 말해 사회, 경제, 환경에 문화를 추가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다른 한편 ‘발전의 목적으로서의 문화와 가치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따르면 문화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임. 그렇다면 문화는 넷째 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축을 아우르는, 혹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함.

#### 5. 우리나라 개발협력에의 제안

· 2006년 <문화헌장제정위원회>에서 ‘문화헌장과 한국사회’ 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던 <문화헌장>이 있음.

· <문화헌장>은 우리사회에서 기본권리로서의 문화, 창조·참여·향유의 평등한 권리로서의 문화,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다양성의 원칙, 약자와 소수의 문화권,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 지역문화창달의 원칙, 예술과 학문의 자유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문화산업 균형의 원칙 등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실행약속의 범위를 짚고 있음.

· 문화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문화 분야에서 함께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봄.

#### 참고 : <문화헌장>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우리가 전통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이어받고 보존과 혁신, 성찰과 희망을 결합하여 사람의 사회를 열어갈 창조적 동력은 문화로부터 나온다.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놓이고 사람들의 삶이 높은 성취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사회가 사람의 사회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들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초석이 될 문화적 가치들을 찾아내며 사회발전의 문화적 원칙들을 천명하여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다지고자 2006년 5월 이 헌장을 공포한다.

· 우리나라 문화정책 상황과 국제협력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 수용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외 활동에 따른 문화분야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필요

- 정부 부처 내의 역할과 기능 합의 필요
  - 원조규모의 확대를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 : 인식전환을 위한 국내 프로그램/국가 예산구조 속에서의 안정적 재원확보
  - IT 기반 지역지식과 문화활용의 프로그램 기획·개발·적용(수원국의 주체적 생산 및 관리 능력 증진 고려)
-



## 2012 제 2차 문화와 발전 라운드테이블 행사 자료집

퍼 내 날 | 2012년 9월 21일

퍼 내 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

퍼 내 이 | 전택수

엮 은 이 | 강상규 · 김유진 · 손상희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 화 | 02-6958-4160

팩 스 | 02-6958-4252

전자우편 | [culture.sd@unesco.or.kr](mailto:culture.sd@unesco.or.kr)

홈페이지 | <http://www.unesco.or.kr/cd>

한위간행물등록번호 | CL/2012/DI/5